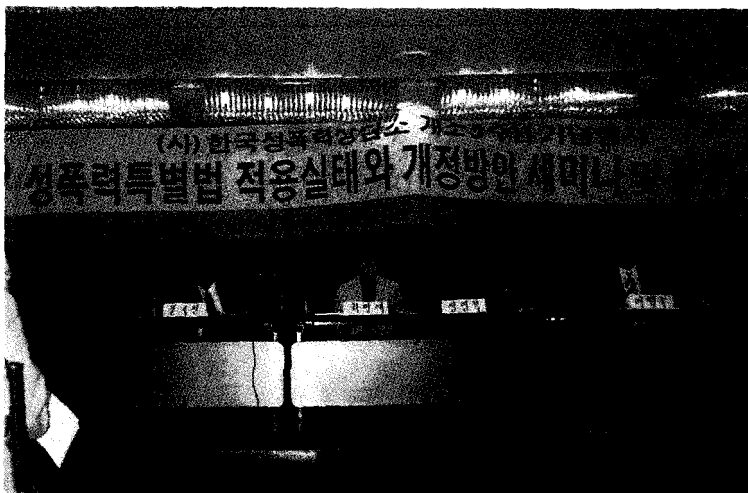


## “바로 알고 바로 행이지”

연민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자유기고가



• 최근의 잇단 성폭력 사건들은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이젠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진은 지난 4월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주관한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세미나.

###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얼마전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이 출산한 사건과 아산 주민의 11살 소녀 가장 성폭행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는 성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저간의 성폭력 사건들의 원인을 분석하면 우리는 성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먼저, 여중생 출산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임연령기에 있는 여중생에게 성폭력 대처방법, 임신·출산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시켰다면 최소한 만삭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소녀가장이 아산 주민으로부터 당한 지속적인 성폭력은 우리 나라의 성교육이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점과, 여성의 순결교육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산 마을의 한 주민은 이 여학생이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 학생이 평소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성에겐 성폭행을 가해도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인가? 남성들은 이러한 논리로 자신들의 성폭행을 합리화했고, 그것은 통념이 되어 그동안 여성들을 움직였고,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인식은 성폭력에 대한 합리화는 커녕 남성이 성충동을 자제할 줄 모르는 동물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도덕성의 기준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에 두지 않고 타인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하는 인격적 미숙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성들의 성욕은 본능이 아니라 자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마땅히 자제해야 하고 여성을 성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성교육은 어떠한가? 지금부터 그간의 성교육의 문제점과 위에서

정한 방향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성교육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자.

### 그동안의 성교육 이러했다.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선 바른 생활과 체육,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정과 생물, 윤리, 교련 등 관련 교과목에서 성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교과외시간에 특강의 형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과목에서 분산되어 실시하는 성교육의 시간은 모두 합쳐도 한 학기당 2회정도, 1회당 2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터」(1995.9), 한국성폭력상담소 계간 소식지)

학교성교육이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문제점이 많다.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주로 신체변화등의 생리적인 면에 치우쳐있고 그나마도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윤리교과 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유교적이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고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채 지극히 빈약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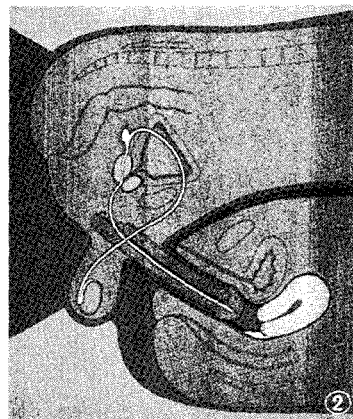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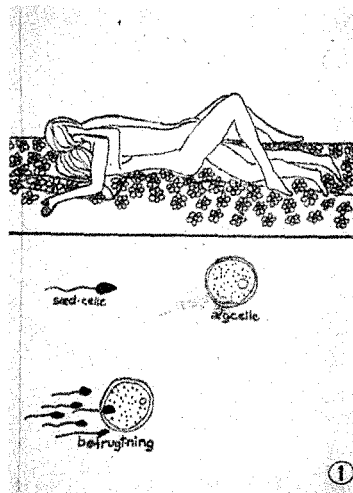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현재의 학교 성교육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최근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서울시내 고등학교 남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얻는 곳은 성인용 매체나 음란물이며, 학교 선

생님이나 부모님에게서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응답한 숫자는 1%정도에 그쳤다. 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해서도 92.5%가 만족하지 않는다

고 대답했다.

이렇게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성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과 통념을 성의 본질인양 착각하

**지금까지의 성교육은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주로 언급됐으나 앞으로는 피임방법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교육 ① 덴마크의 워크북(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자)(유치원용) ② 서독의 교과서 <성입문>(국민학교 고학년용) ③ 성교육의 수업 광경(미국의 중학교) ④ 프랑스의 카드식 부교재 <사랑과 인생>(3~8세용)

## “남성들의 성욕은 본능이 아니라 자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마땅히 자제해야하고 여성을 성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게 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몇 가지 예로 학생들은 강간당한 여성들이 실제로는 이를 즐기는 것으로 믿고 있고 성관계의 의사결정 여부에 있어서도 여성의 'NO'를 'YES'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터») 무엇보다도 현재 성교육의 체계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왜곡된 성지식을 전파하여 내일의 가해자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틀을 이룬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의 성교육은 남성은 성적으로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성관계 결과 수반된

임신에 대해서는 여성이 감수해야 한다거나, 성폭력은 여성이 동기유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 남성의 여성편력은 오히려 자랑이라는 식의 그릇된 가치관을 남성중심적인 성지식을 주입시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맞도록 개인을 사회화시키고 성적불평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재적인 근거로 자리잡게 된다. («나눔터»)

### 앞으로 성교육 이래야 한다.

이제 성교육은 보건학적인 측면에서의 성기(性器)교육이나 성을 성관계로만 파악하는 성기(性技)교육만이 아니라 남녀가 모두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격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성교육은 단순한 성교육(Sex Education)을 넘어 '성적 의사소통(Sexual Communication)'의 개념으로 새롭게 성적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전인(全人)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대전제를 깔고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 초등학교때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 바른 성지식과 이들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고민을 올바르게 풀어주고, 불필요한

성적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 누구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상담소가 학교나 지역사회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성교육 과목을 정규과목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사범대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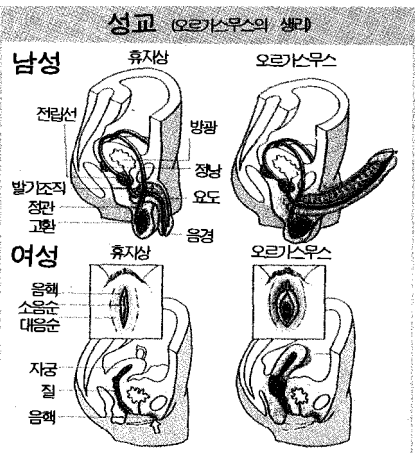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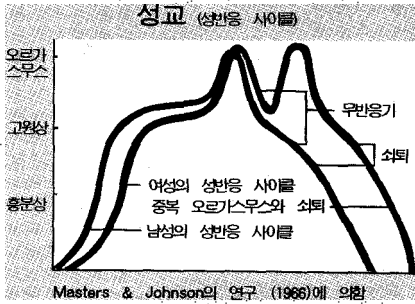
-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에게 직장내 성폭행 예방 프로그램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성교육이 국민교육이 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 또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가치관을 부여하는 율란문화나 성상품화의 기체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와 규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성이라면 무조건 터부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녀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진지하고 설득력 있는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과 성분화를 위한 수칙(가족과 성 상담소)

1. 성에 대해 궁금한 것은 전문 교사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 성 교육은 인간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전인(全人)교육이어야 한다.

2. 성충동을 느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다.

3. 성충동은 스스로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것임을 안다.

4. 자위행위시 청결은 필수이며 자위행위가 지나치면 미래의 건강한 부부생활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5. 자신의 의사는 분명히 하고 이성친구의 거절을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6. 이성친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7. 성관계란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한 표현방법임을 안다.

8. 성관계를 통해 아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9. 음란비디오, 잡지, 만화,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에 나타난 성에 대한 묘시는 과장되고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식한다.

10.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폭력 행위임을 깨닫는다.

### 가정에서 부모의 수칙 10가지

1. 자녀의 성장에 따른 변화에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다.

2. 자녀의 질문에 편견을 주거나 숨기지 말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3. 자녀가 성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갖는다.

4.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을 준비한다.

5. 부모 자신도 '바른 성'에 대해 공부한다.

6.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7. 자녀의 이성교제를 인정하고 상호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돕는다.

8.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9. 부부의 건강하고 평등한 관

계가 자녀의 건강한 성의식과 성행동을 가져오는 첫임을 잊지 않는다.

10. 불법 비디오나 서적등을 보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 학교의 역할과 책임

1. 성교육을 인간교육적인 측면에서 정식교과목에 넣고 성교육 전담교사제를 만든다.

2. 청소년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을 학교나 지역사회에 둔다.

3. 학교, 학원이 주변에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성적 자극을 주는 포스터나 광고물을 규제하는 감시체계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만든다.

4. 음란 비디오나 서적을 대여하거나 팔기전에 "모든 청소년은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

5. 영화, 비디오등의 등급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유통과정을 철저히 지킨다.

6. 성을 무조건 감추려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7. 이중적인 성 규범의 사고에서 벗어난다(성에 있어 남성에게는 허용적, 여성에게는 제한적인 규범)

8.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정확하게 규제한다.

9. 청소년 전용 놀이 공간을 만든다.(찾집, 오락실, 비디오 방 등 휴식공간)

10.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문화를 마련한다.

Ⓐ